

기초지수

KIS 투자등급회사채 지수(총수익)는 KIS종합채권지수 구성종목 중 신용등급 A+ 이상 AA0 이하, 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타금융채, 회사채(보증회사채 포함) 중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인 종목들로 구성된 지수

기본정보

최초설정일	2022년 8월 18일
기초자산	국내채권
순자산총액	172,345백만원
1주당순자산(NAV)	111,190.07원
총보수율(TER)	연 0.10 %
분배금기준일	회계기간 종료일
집합투자업자(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탁업자(자산보관)	한국씨티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
AP/LP	홈페이지(www.tigeretf.com) 참조

거래정보

상장거래소	KRX 유가증권시장
종목명	TIGER 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
상장코드	438330
블룸버그 티커 (펀드)	438330 KS
블룸버그 티커 (기초지수)	-
결제일	T+2
설정단위(CU)	1,000주
거래단위	1주
일거래량(최근3개월 일평균)	4,492주
일거래대금(최근3개월 일평균)	494백만원

분배현황 (최근 2년)

분배금지급일	주당분배율(%)	주당분배금(원)
		0

투자 포인트

-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효과 확대
- 투자등급회사채의 낮은 부도율 & 변동성
- 전문적인 크레딧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인 운용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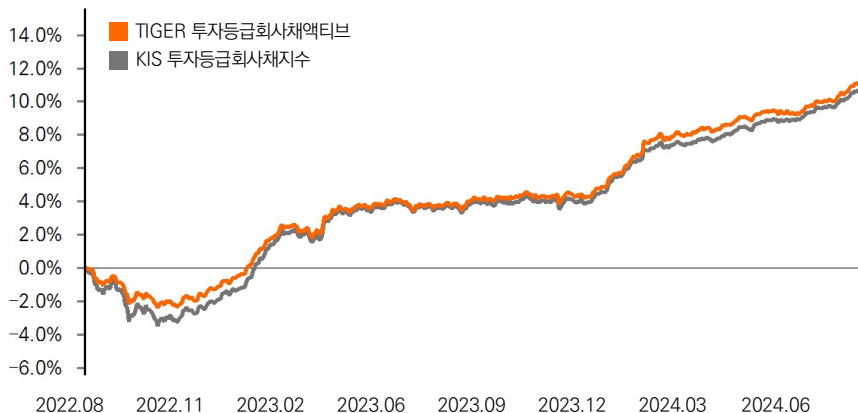
운용성과 (%)

구분	1M	3M	6M	1Y	3Y	YTD	설정이후	변동성
TIGER 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	0.93	1.64	2.90	7.00	-	2.87	11.17	1.81
KIS 투자등급회사채지수	0.87	1.78	2.99	6.73	-	2.98	10.74	1.67

* 위의 수익률 정보 및 아래 그래프는 운용기간 중 발생한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하였음.

변동성 : 최근 1년간 일간수익률 기준 표준편차 연환산 (운용기간 1년 이내인 경우 전체 운용일수 기준)

누적성과 그래프



주요보유현황

채권명	만기	듀레이션	표면금리(%)	비중(%)	총듀레이션
JB 우리캐피탈490-3	(5.0년물)	3.79	5.43	20.70	
우리금융조건부(상)3-1(후)	(8.0년물)	3.06	2.13	18.42	3.01
하나은행 조건부자본증권(상)44060i(후)	(10.0년물)	6.29	2.58	13.37	
신한카드2168	(5.0년물)	3.46	4.11	10.08	
동원시스템즈28-1(녹)	(1.9년물)	0.80	4.29	10.00	
SK매직6	(3.0년물)	0.67	3.16	9.86	
우리카드229-4	(4.0년물)	2.80	4.62	5.40	
신한캐피탈486-4	(3.0년물)	2.07	4.78	5.34	
하나캐피탈430-5	(2.9년물)	2.78	3.76	2.87	
우리은행조건부자본증권(상)23-03-이((10.0년물)	4.39	2.68	2.70	
주요보유현황 전체 총목 비중				98.75	

* 듀레이션(Duration)은 해당 종목(채권)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의미합니다.

※ ETF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를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 TIGER 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TIGER 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

TIGER ETF

(438330)  개인연금  퇴직연금

1. 운용 경과 및 성과분석

6월 국내채권 시장은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둔화된 경제지표의 영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었고 외국인의 우호적인 수급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월 초 미 GDP 잠정치가 하향조정되었고, 미 PCE는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며 국내 CPI도 하향안정화 되며 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5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자 미 국채 금리는 급등하였고 이에 연동되어 국채금리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가 유입되었고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의 영향으로 월초부터 시작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6월 FOMC에서 둔화된 5월 CPI를 반영하지 않아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1회로 축소하며 강세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월중 계속되는 외국인의 강한 국채선물 순매수가 강세를 뒷받침하며 국고채 금리는 연저점을 갱신하였습니다. 월말 레벨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었고 외국인의 수급이 둔화되었으며 미 대선 토론의 영향으로 소폭 금리는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국고채 10년물 기준 전월 말 대비 32.0bp 하락한 3.260%로 마감하였습니다.

동 펀드는 6월 한달 간 BM대비 아웃퍼폼 하였습니다. 월 중 금리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동 펀드는 듀레이션을 BM대비 길게 잡아 운용하여 듀레이션 성과에서 BM 대비 플러스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커브의 경우, 5년 이하 구간 커브가 플래트닝 되는 국면 속에서 타 구간 대비 강세를 보인 3Y 이상 구간을 OW 함으로써, 커브 성과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다른 구간 대비 약세를 보인 2Y 미만 구간을 OW하고, 강세를 보인 2Y~3Y 구간을 UW 함으로써 커브 성과에서 BM을 하회하였습니다. 섹터 성과의 경우, 월간 크레딧물이 만기별, 섹터별 혼조세 보이는 국면에서, 여타 섹터 및 구간 대비 강세를 보인 1~2년 구간 은행채 및 5~10년 구간 은행채를 OW 함으로써 BM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 종목선택 효과에서 BM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며, 6월 한달 간 전반적으로 BM대비 +8.84bp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며 마감하였습니다.

2. 포트폴리오 변경상황

동 펀드에서는 월 중 106억 가량의 설정이 있었습니다. 월간 금리 하락하는 국면에서 설정자금 및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잔존만기 5년~7년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확대시켰습니다.

3. 익월 운용 계획

채권 수요자금 유입이 지속 등으로 크레딧의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초 이후 누적된 MMF 자금이 단기채 수요를 지지하여 1년 AAA급 은행채는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상황입니다. 7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출회할 경우 상반기 우량채 랠리의 온기가 하위 등급으로 확산되며 상위 등급 레벨부담과 신규발행 제한 등으로 등급간 스프레드 축소되며 AA~등급 여전채 및 A등급 우량 회사채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변경되지 않고, 만장일치 동결인 경우에 스프레드 레벨과 역캐리에 대한 부담으로 조정 압력이 있을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부동산PF 사업장 손실 규모가 저축은행 업계에서 쌓은 총당금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관련된 섹터와 저등급 회사채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